

노인가구의 정보화 상태가 우울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이 윤 정(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노인복지학 전공 조교수)

1. 서론

한국의 컴퓨터와 인터넷 보급률은 2012년 현재 81.9%와 81.8%로(통계청), 세계적인 정보 강국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으며(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새로운 통신기기의 개발과 보급이 그 어느 시기보다 빠르고 지속적이어서 메신저,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이용 등이 친교 혹은 교제의 중요 도구(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1)로 거론될만큼 소통과 교류의 양식이 크게 바뀌고 있다.

이처럼 전국의 정보 인프라는 모든 국민의 생활환경에 깊숙이 파고들어, TV와 라디오, 전화 등의 방송통신기기의 발달이 가져온 일상의 변혁과 같이 생활패턴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그만큼 사용자에게 신속한 적응능력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빠르게 적응하는 현대인들은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체계로 다양한 사람들 속에 무한한 참여가 가능하고, 사회적 연계망을 끊임없이 확장시킬 수 있어 정보의 확산과 그 파급효과로 위대한 결과를 창출하기도, 혹은 또 다른 소외와 갈등의 깊은 골을 만들기도 한다.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을 역시 모든 연령대에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어 10-30대 젊은 층은 99% 이상이 이용하고 있지만, 70세 이상에서는 그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큰 정보격차를 나타내고 있으므로(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1) 세대 간 소통과 교류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고령자 층은 변화하는 정보통신 환경 내 적응의 과정에서 심리정서적 위축감을 경험할 수 있다.

노인기의 심리정서적 발달의 주요 과업은 사회적 역할상실과 신체적 노화에서 야기되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우울의 극복 등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소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지만 그 노력은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노인의 자살율이 1위인 국가로 거론되어, 노인 자살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안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의 우울을 예방하고, 소통과 교류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다양한 정보와 지원책을 개입시키고 있는데(손연기, 2008), 다소 획일화된 접근으로 영향요인의 다각적 모색과 효과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의 정보화 지원을 통한 생활기능 향상, 그리고 우울 혹은 위기감 감소 효과를 자살생각으로 측정하여 예측해보고자 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목적을 선정하였으며, 전국 규모의 조사 자료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보화 상태를 파악한다.

둘째, 노인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우울수준과 자살생각의 차이를 살펴본다.

셋째, 노인의 정보화 상태에 따른 우울수준과 자살생각의 차이를 분석한다.

넷째, 노인의 정보화 상태가 우울수준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한다.

2. 선행연구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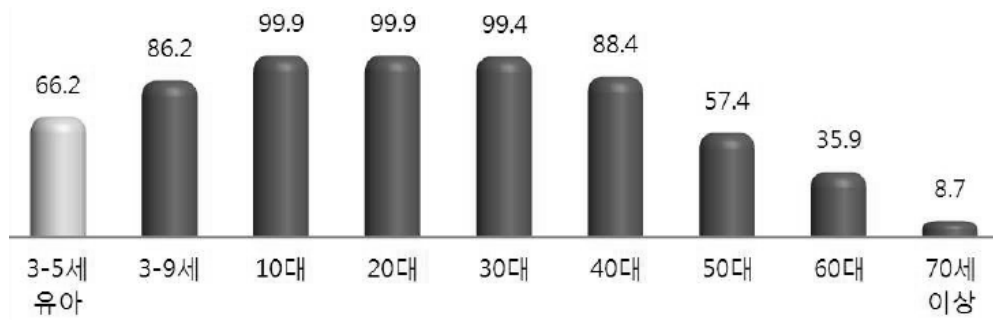
1) 노인의 정보화

정보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컴퓨터 혹은 인터넷 활용이 노인기에 경험하는 소외 및 역할 상실 등 적응의 과정에 보다 성공적으로 기여하고, 자긍심 향상과 더불어 사회참여활동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은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박충선·이춘옥, 2003; 서혜경·김은주, 2004; 이금룡, 2007; 이금룡·홍성태·이윤경, 2004).

이에 이금룡(2007)은 노인의 정보화가 노년기 적응과정에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SOC Model을 적용해 선택(selection), 최적화(optimalization), 보상(compensation)의 단계로 노인기 기능상실의 보완과정을 탐색한 바 있다. 그 결과 인터넷 활용이 노인들에게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기능과 역할 상실을 보완하기 위해 선택된다기보다는 다른 동기와 계기를 통해 선택되며, 현재의 상황을 좀 더 풍요롭게 하는 정도의 기능에 그쳐 성공적인 노화의 핵심 요소인 노인들의 사회, 경제적 활동과 연계되지는 못한다고 하였다. 즉, 인터넷은 노인들에게 제한적이고 편협한 보완기능이 이루어지고 있어 연구 당시의 시점에서는 인터넷 활용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정보화 교육보다 더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 매 해 3세 이상 인구의 인터넷 이용율이 세계적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그 중 60세 이상 노인인구의 인터넷 쇼핑몰 이용율(19.7%, 전체 64%)이나 인터넷 बैं킹 이용율(16.2%, 전체 42%) 등은 해마다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으로, 컴퓨터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상당 시간 사회와 소통하고 있는 다른 연령대와의 정보격차는 아직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무선인터넷의 활용이 확산되면서 스마트폰, 스마트 패드 등의 활성화로 무선 인터넷 환경이 날로 편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0대 이상의 장노년층의 이용율(22%)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고(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활용방법을 모르거나(40%), 구입비 및 이용비용의 부담을 느끼는 비율(26%)이 높아(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아직은 전 연령대 중 정보 소외 연령대층으로 거론되고 있다.



Source :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2011). 「2011 The Research of Internet access」

Figure 1. The Internet Access rate by Age group(%)

한편,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하는 노인들만을 살펴보면, 학력수준이 높고, 전문직종에 종사하며, 소득수준도 높고, 인터넷 이외에도 다양한 미디어를 보유하거나 이용하고 있어(홍명신, 2003), 장년층 내에서도 정보화 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서재철과 그의 동료들(2008)은 노인들의 이메일 이용율과 블로그 이용율은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그리 낮은 편은 아니어서 53%, 18% 정도의 비율에 해당하며, 인터넷 신문읽기와 잡지 및 서적 읽기 영역은 타영역에 비해 높은 편이어서 향후 이 영역에서의 고령자 이용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임을 언급한 바 있다(서재철·조찬형·김주영·안인희·나은아·박수미, 2008). 즉, 현대 정보화 사회의 노인은 시대적 흐름 속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화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 소외계층으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집단 내 정보화 수준이 인구사회적 변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이질적 특성이 보고되고도 있다.

2) 정보화 시대의 노인의 사회적 욕구, 우울과 자살생각

정보화 시대의 노인의 정보화 욕구와 행동, 그 수준은 생활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검증되고 있다. 김재휘·김지호·신상화(2002)는 노인은 다양한 정보획득을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며(35%), 온라인상에서 친교를 확대해 외로움과 무료함이 감소한다(43%) 하였고, 자존감 향상(22%)도 경험한다고 하였다. 한편 이윤정·안준희·임경춘(2009)의 연구에서는 노인들이 여가놀이를 인터넷이나 컴퓨터로 즐길 의향을 갖고 있어(51%), 40대(32%) 보다 더 많은 이용의지를 보인다고 하였으며, 인터넷 또는 컴퓨터 게임 등을 통해 사회적 제약을 극복하고자 하는 욕구도 23%나 되어 사회적 활동과 연계를 희망하는 수준도 확인할 수 있다.

안준희와 그의 동료들도(2011) 인터넷/컴퓨터 게임활동이 노인의 자신감을 높여 일상생활에서의 자아통제감을 높일 수 있다고 하면서, 자아통제감이 매개요인이 되어 삶의 만족도와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입증한 바 있다. 한편 이미진과 그의 동료들은(2008)은 교육도우미의 일대일 교육방식으로 노인에게 휴대전화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정보격차 효과를 연구한 바 있는데, 노인들에게 휴대전화의 주요기능 교육을 4회 실시하고 최종 363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휴대전화 교육 프로그램이 노인들의 휴대전화 사용 기능을 유의미하게 향상시켰음을 보고하였다. 즉, 노인은 정보화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욕구와 행동은 정신건강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일부 질적 연구에서는 노인의 정보화에 대해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데, 노인들은 가족, 특히 손자녀들과의 교류를 위해 이메일 등을 배우고 싶어 하지만, 지속성이 보장되지 못해 처음에는 자아효능감을 느끼나 바쁜 상대방들에 폐를 끼치는 것 같아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하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사회적 네트워크를 풍요롭게 형성하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인터넷이나 이메일의 활용도가 더욱 높으나, 정작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부여받고 소외감을 해소해야 할 노인들에게는 그 활용도가 미미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이금룡, 2007).

실제로도 일반국민의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취약계층의 정보화수준을 살펴보면, 장노년층의 정보격차지수는 32.5로 평균 28.9보다 높으며, 가장 정보격차지수가 높은 농어민층의 지수 38.2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스마트폰 이용율에 있어서도 장노년층은 1%에도 훨씬 못미치는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이용하지 않는 이유도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지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40% 이상으로 '구입비 및 이용비용의 부담'으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 26%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정보격차를 컴퓨터, 인터넷 등 정보통신 인프라 접근수준으로 언급하는 접근격차에 있어서도, 그 사용능력 수준을 의미하는 역량격차에 있어서도, 컴퓨터나 인터넷 사용으로 업무, 학업, 여가, 사회활동,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형성 등 일상생활 부문별 도움 정도를 의미하는 질적 활용격차에서도 노인은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다.

정보화에 있어 접근의 격차는 컴퓨터 및 인터넷 보급을 통해 좁혀지고 있고, 역량의 격차는 교육 등의 노인 프로그램 개입으로 해결점이 모색되고 있으나, 사회적 배제라 여겨질 수 있는 질적 활용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아직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노인의 정보화수준이 자신감과 자아존중감, 자아통제감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김재호·김지호·신상화, 2002; 박충선·이춘옥, 2003; 안준희·임경춘·이윤정·김경식, 2011; 이금룡, 2007; 이미진·이가옥·이지영, 2008; 이윤정·안준희·임경춘, 2009;), 그 사회의 정보화수준이 높을수록 질적 활용격차가 커지는 노인집단에서는 여가와 사회활동, 소통과 대인관계에서 또 다른 소외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으므로, 자신감, 자아존중감, 자아통제감과 같은 노인의 심리정서적 발달을 지연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안준희와 그의 동료들(2011)은 연구를 통해 컴퓨터나 인터넷 게임활동 참여가 자아통제감을 향상시킴으로써 우울을 감소시키고,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간접적 영향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현재까지 컴퓨터와 인터넷 혹은 유무선 통신활동이 궁극적으로 개인의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정보화 환경이 곧 생활환경이 되고 일상의 행동패턴을 변화시키는 현대사회에서는 노인의 정보화 수준이 곧 일상의 기능이 되고 적응의 과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일상의 기능과 적응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심리적 위축감, 우울이 촉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하겠다.

노인의 우울은 개인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주로 신체적 질병, 배우자의 죽음, 경제적 약화, 활동능력 저하, 고령, 학대 및 사회적 고립 등의 주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조계화, 김영경, 2008; 신경림, 강윤희, 정덕유, 최경예, 2007; 양경미, 2004). 이러한 우울의 결과, 노인은 자존감 저하, 사회적 위축, 미래에 대한 비관적 절망,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 등의 증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양순미, 임춘식, 2006), 그 중 우울은 노인의 자살생각을 이해하는 데 단일의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검증되고 있다(Conwell, Caine & Olsen, 1990; 조계화·김영경, 2008에서 재인용).

자살생각은 자살행위 그 자체에 대한 연구가 어려운 관계로 흔히 자살에 관한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변인이다. 자살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자살생각, 자살시도와 자살행위에 이르는 연속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중 자살생각은 자살행위와는 다른 속성을 지니나 여전히 자살변인의 한 요소로써 자살행위의 이전 단계라고 할 수 있다(김형수, 2002). 이에 기존의 자살 연구들은 자살의 개념에 자살생각을 포함해 적용하고 있다.

대부분 자살예방 프로그램은 개인의 우울 증상에 대한 개입에 초점을 두고, 노인기 인생 과업의 중요한 과제인 죽음에 대한 이슈를 다루고 있어, 노인을 둘러싼 또다른 체계적 개입을 시도하거나 연구한 자료는 상당히 부족하다. 자살생각으로 가기 이전 단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중요 요인으로 우울을 다루되, 우울을 다룰 수 있는 개인, 가족, 사회적 지원체계로써 또 다른 개입요소의 발견도 시도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노인의 “정보화”도 그러한 요소 중 하나일 수 있다. 시대적 변화와 환경을 고려해 정보화 수단도 하나의 지지체계로 고려할 수 있으며, 개인의 심리정서적 측면의 관계와 영향력 검증이 시도되는 시점에서 우울과 자살과의 관련성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모집단은 전국 16개 시, 도의 일반주거 시설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조사모집단은 2005년도의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실시된 10%의 표본조사구와 기숙사, 특수 시설 조사구, 섬지역을 제외한 조사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이다.

표본추출은 층화 2단 집락추출로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에서는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60세 이상의 자료를 구분하고, 본 연구에 사용되는 주요 변수를 기준으로 Data Cleaning을 실시해 총 6,774 case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와 분석방법

(1) 인구사회학적 변인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으로는 성별과 연령, 학력수준, 가구유형, 취업, 자가소유, 가구원 수, 소득수준을 포함하였다. <표 1>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성별은 여성을 기준변수로 더미변수화하였고, 연령은 만 연령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학력수준은 무학, 초등졸, 중등졸 이상으로 3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회귀분석 및 로짓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력변인을 더미변수화하여 ‘무학’ 집단을 기준변수로 처리하였다. 가구유형은 원자료의 기준을 토대로 4집단으로 구분해 독신가구, 부부

가구, 자녀동거가구, 조손가구로 분류하였다. 가구유형이 종속변인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부부노인가구'를 기준변수로 처리하였다.

취업상태는 취업하지 않은 집단과 취업한 집단으로 구분하였는데, 비취업집단이 기준변수로 처리되었다. 자가유무는 무소유집단과 소유집단으로 구분해 무소유집단을 기준변수로 처리하였다. 소득수준은 연간 총소득으로 제시하였다.

(2) 정보화 상태와 우울, 자살생각

정보화 상태는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 상태와 핸드폰 소유 상태로 파악하였다.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정보의 접근성, 활용역량, 질적활용에 따라 정보화 상태가 구분될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정보수단의 접근 가능함과 보유여부의 파악이 노인의 정보화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1차적인 변인으로 판단되어 2가지 변인으로만 살펴보았다.

우울수준은 노인실태조사의 설문문항 총 15개를 그대로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그 내용 중 우울증상 해당란에 체크하였을 경우, 1점, 그렇지 않으면 0점으로 처리하여 응답한 질문 수를 더해 총 점수를 산출하였다. 우울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0.909$ 로 파악되었다. 자살생각은 생각한 적이 '없다'와 '있다'로 응답된 내용을 더미변수로 처리되었으며, '없다'의 응답을 기준변수로 하였다.

4. 연구결과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서와 같이 남성의 비율이 56.8%로 여성보다 높고, 학력수준은 무학의 비율이 34.4%, 초등졸인 경우가 33.2%, 중등졸 이상의 집단이 32.4%로 나타났다. 가구유형은 부부노인가구가 가장 높아 38.7%였으며, 독인가구도 33.5%나 되었다. 취업상태는 비취업비율이 높아 64.3%였으며,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70.5%로 높게 나타났다. 평균 가구원 수는 2명이었으며, 연간 총소득은 1850만원으로 월 평균 153만 9천원 수준이었다. 연령은 평균 만 74세로 나타났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 of Participants

	Frequency/Mean	%/Standard Deviation
Gender	Female	2,923 43.2
	Male	3,851 56.8
	Total	6,774 100.0
Education	Ineducation	2,330 34.4
	Elementary school	2,252 33.2
	Middle school or above	2,192 32.4
	Total	6,774 100.0

Table 1. to be continued

	Frequency/Mean	%/Standard Deviation
Family Type	Single	2,229 33.5
	Couple	2,574 38.7
	Live with children	1,682 25.3
	Live with grandchildren	172 2.6
	Total	6,657 100.0
Employment status	Unemployed	4,356 64.3
	Employed	2,418 35.7
	Total	6,774 100.0
Home ownership	Non-possession	1,997 29.5
	possession	4,777 70.5
	Total	6,774 100.0
Number of Family		2.1 1.3
Yearly Income(10,000 Won)		1847.7 1755.7
Age		74.2 6.1

2) 노인의 정보화 상태

대상자들의 정보화 상태를 컴퓨터/인터넷 활용여부, 핸드폰 소유유무로 구분해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차이를 검증한 내용은 Table 2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다.

컴퓨터/인터넷 활용 여부에 있어서는 성별과 학력, 가구유형, 자가유무, 가구원 수, 연간 소득수준, 연령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었다. 취업유무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다. 성별에서는 여성보다는 남성의 활용가능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수준은 높을수록 활용가능한 비율이 높아 중등졸 이상에서 31.5%의 응답율을 보였다. 가구유형별로는 부부가구의 활용가능비율이 가장 높아 18.4%였으며, 독인가구는 활용가능비율이 가장 낮아 4.4%에 불과하였다. 또한 자기 집을 소유한 집단이 무소유 집단보다 활용가능비율이 높아 14.2%로 나타났다. 컴퓨터/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집단의 가구원 수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많았으며, 연간소득수준도 높았으나, 연령은 낮게 나타났다. 핸드폰 소유비율은 가구원 수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성별에 있어서는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모두 낮은 편은 아니었으나 남성의 소유율이 여성(63.2%)보다 높아 80%이상으로 나타났다. 학력수준은 높을수록 핸드폰 소유비율이 높게 나타나 무학 집단 57.2%의 소유율과 비교해 중등졸 이상의 집단에서는 88%가 소유하고 있어 큰 폭의 차이를 나타냈다. 가구유형에 있어서는 부부가구의 소유율이 가장 높아 88%였는데, 독인가구의 소유율은 가장 낮은 편으로 67% 정도였다. 취업상태에서는 취업을 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소유율이 높아 81.4%였으며, 자기 집을 소유한 집단이 핸드폰 소유율이 더 높아 75.7%로 나타났다. 헨

드폰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가구가 연간 소득수준이 높았으며, 연령은 낮게 나타났다.

3) 우울수준과 자살생각

우울수준은 모든 인구사회학적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었는데, 그 내용은 Table 3과 같다. 남성(4.3)보다는 여성(6.1)의 우울수준이 높았고,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우울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유형에 있어서는 부부가구의 우울수준이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는 자녀동거, 독신, 조손가구 순이었다. 취업상태에서는 비취업 노인가구의 우울수준이 높았다. 가구원 수와 연간소득은 우울수준과 부적 상관관계를, 연령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자살생각은 연령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었다. 성별에서는 여성노인이 자살생각을 하고 있는 비율이 높아 13.6%였으며,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비취업상태의 노인이, 자기집이 없는 노인의 자살생각의 비율이 높았다. 가구유형에서는 독신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조손가구, 자녀동거가구, 부부가구의 순으로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자살생각을 하는 노인집단은 가구원 수가 적었고, 연간 소득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Table 2. Information Condition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
(% or Standard Deviation)

		Computer / Internet Literacy			X ² /T-test	Cellular phone possession			X ² /T-test
		Unavail-	Avail-	N		No	Yes	N	
		able	able						
Gender	Female	2797 (96.3)	108 (3.7)	2905 (100.0)	336.39***	1076 (36.8)	1845 (63.2)	2921 (100.0)	240.88***
	Male	3101 (81.6)	701 (18.4)	3802 (100.0)		766 (19.9)	3085 (80.1)	3851 (100.0)	
	Total	5898 (87.9)	809 (12.1)	6707 (100.0)	1842 (27.2)	4930 (72.8)	6772 (100.0)		
Education	Ineducation	2283 (99.0)	24 (1.0)	2307 (100.0)	1156.30** *	997 (42.8)	1332 (57.2)	2329 (100.0)	544.40***
	Elementary school	2127 (95.5)	101 (4.5)	2228 (100.0)		582 (25.9)	1669 (74.1)	2251 (100.0)	
	Middle school or above	1488 (68.5)	684 (31.5)	2172 (100.0)		263 (12.0)	1929 (88.0)	2192 (100.0)	
	Total	5898 (87.9)	809 (12.1)	6707 (100.0)		1842 (27.2)	4930 (72.8)	6772 (100.0)	

Table 2. to be continued

		Computer/Internet Literacy			X ² /T-test	Cellular phone possession			X ² /T-test
		Unav- ailable	Availa- ble	N		No	Yes	N	
Family Type	Single	2127 (95.6)	97 (4.4)	2224 (100.0)	229.81***	736 (33.0)	1491 (67.0)	2227 (100.0)	131.99***
	Couple	2072 (81.6)	468 (18.4)	2540 (100.0)		504 (19.6)	2070 (80.4)	2574 (100.0)	
	Live with children	1453 (87.6)	205 (12.4)	1658 (100.0)		534 (31.7)	1148 (68.3)	1682 (100.0)	
	Live with grandchildren	160 (93.6)	11 (6.4)	171 (100.0)		54 (31.4)	118 (68.6)	172 (100.0)	
	Total	5812 (88.2)	781 (11.8)	6593 (100.0)		1828 (27.5)	4827 (72.5)	6655 (100.0)	
Employment status	Unemployed	3770 (87.8)	526 (12.2)	4296 (100.0)	0.37	1393 (32.0)	2961 (68.0)	4354 (100.0)	141.49***
	Employed	2128 (88.3)	283 (11.7)	2411 (100.0)		449 (18.6)	1969 (81.4)	2418 (100.0)	
	Total	5898 (87.9)	809 (12.1)	6707 (100.0)		1842 (27.2)	4930 (72.8)	6772 (100.0)	
Home ownership	Non-possession	1840 (93.2)	135 (6.8)	1975 (100.0)	72.09***	683 (34.2)	1313 (65.8)	1996 (100.0)	70.40***
	possession	4058 (85.8)	674 (14.2)	4732 (100.0)		1159 (24.3)	3617 (75.7)	4776 (100.0)	
	Total	5898 (87.9)	809 (12.1)	6707 (100.0)		1842 (27.2)	4930 (72.8)	6772 (100.0)	
		Computer/Internet Literacy			X ² /T-test	Cellular phone possession		X ² /T-test	
		Unavailable	Available	No		Yes			
Number of Family	Mean	2.1 (1.3)	2.4 (1.1)	-6.22***	2.1 (1.3)	2.2 (1.2)	-1.28		
	N	5898	809		1842	4930			
Yearly Income	Mean	1672.8 (1566.9)	3110.6 (2426.7)	-16.39***	1505.8 (1568.9)	1975.7 (1804.5)	-10.52***		
	N	5898	809		1842	4930			
Age	Mean	74.6 (6.0)	71.0 (5.5)	17.57***	77.6 (5.9)	73.0 (5.6)	29.80***		
	N	5898	809		1842	4930			

* p<.05, ** p<.01, *** p<.001

Table 3. Level of Depression and Suicidal Thought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
(n=6774)

		Level of Depression			F/T-test	Suicidal Thought			F/T-test
		M	SD	N		No(%)	Yes(%)	N	
Gender	Female	6.1	4.7	2897	15.60***	2509(86.4)	394(13.6)	2903(100.0)	22.90***
	Male	4.3	4.4	3807		3435(90.2)	374(9.8)	3809(100.0)	
						N	5944(88.6)	768(11.4)	6712(100.0)
Education	Ineducation	6.5(c)	4.8	2302	215.50***	1996(86.6)	309(13.4)	2305(100.0)	15.49***
	Elementary school	4.9(b)	4.5	2229		1985(88.9)	248(11.1)	2233(100.0)	
	Middle school or above	3.7(a)	4.2	2173		1963(90.3)	211(9.7)	2174(100.0)	
						N	5944(88.6)	768(11.4)	6712(100.0)
Family Type	Single	6.2(c)	4.7	2221	95.76***	1900(85.4)	324(14.6)	2224(100.0)	50.56***
	Couple	4.1(a)	4.3	2541		2338(91.9)	206(8.1)	2544(100.0)	
	Live with children	5.1(b)	4.6	1657		1458(87.9)	201(12.1)	1659(100.0)	
	Live with grandchildren	7.1(d)	4.8	171		150(87.7)	21(12.3)	171(100.0)	
						N	5846(88.6)	752(11.4)	6598(100.0)
Employment status	Unemployed	5.9	4.8	4292	20.71***	3730(86.8)	566(13.2)	4296(100.0)	35.37***
	Employed	3.6	4.0	2412		2214(91.6)	202(8.4)	2416(100.0)	
						N	5944(88.6)	768(11.4)	6712(100.0)
Home ownership	Non-possession	6.5	4.7	1972	16.08***	1644(83.2)	331(16.8)	1975(100.0)	78.08***
	possession	4.5	4.5	4732		4300(90.8)	437(9.2)	4737(100.0)	
						N	5944(88.6)	768(11.4)	6712(100.0)
		Level of Depression (correlation coefficient)					Suicidal Thought		T-test
Number of Family		-0.084***					No(%)	Yes(%)	3.25**
							2.2(1.3)	2.0(1.2)	
							N=5944	N=768	
Yearly Income		-0.238***					1895.2	1464.3	7.60***
							(1788.4)	(1433.2)	
							N=5944	N=768	
Age		0.213***					74.2(6.1)	73.9(5.9)	1.36
							N=5944	N=768	

* p<.05, ** p<.01, *** p<.001, a<b<c<d

4) 노인의 정보화 상태별 우울수준과 자살생각

노인의 정보화 상태별로 우울수준과 자살생각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수준으로 검증되었다. 컴퓨터/인터넷 활용이 불가능한 집단의 우울수준이 활용가능한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고, 핸드폰을 소유하지 않은 노인이 소유하고 있는 노인보다 우울수준이 높았다.

자살생각 여부는 컴퓨터/인터넷 활용 상태와 핸드폰 소유여부에 따라 응답비율이 유의미하게 다르게 나타났다.

Table 4. Level of Depression and Suicidal Thought by Information Condition

		Level of Depression			T-test	Suicidal Thought			X ²
		M	SD	N		No(%)	Yes(%)	N	
Computer / Internet Literacy	Unavailable	5.4	4.7	5886	22.96** *	5197 (88.2)	696 (11.8)	5893 (100.0)	5.94*
	Available	2.4	3.3	808		737 (91.1)	72 (8.9)	809 (100.0)	
						N	5934 (88.5)	768 (11.5)	6702 (100.0)
Cellular phone	Non-possession	6.8	4.7	1790	18.59** *	1562 (87.2)	229 (12.8)	1791 (100.0)	4.33*
	Possession	4.4	4.4	4912		4380 (89.0)	539 (11.0)	4919 (100.0)	
						N	5942 (88.6)	768 (11.4)	6710 (100.0)

* p<.05, ** p<.01, *** p<.001

5) 우울수준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노인의 정보화 상태가 우울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회귀분석 모델 1과 모델 2를 통해 검증한 결과 다음의 Table 5와 같이 나타났다. 모델 1은 정보화 상태 변인을 제외한 인구사회학적 변인들만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결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비취업노인이, 중등졸 이상의 학력이나 초등졸 학력의 노인보다 무학의 노인이, 자기 집이 없는 노인이, 연령이 높을수록, 부부노인이 아닌 독신, 자녀동거, 조손가구가, 가구원이 많을수록 우울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영향력은 소득수준, 취업상태, 학력, 자가소유 상태 변인이 크기가 큰 변인으로 파악되었다.

모델 2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정보화 상태 변인을 포함시켜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모델 1에서 영향력이 검증되지 않았던 성별 변인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고, 가구원수 변인의 영향력은 사라졌으며, 컴퓨터/인터넷 활용상태와 핸드폰 소유여부 변인은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음이 검증되었다. 설명력은 16%에서 18%로 증가하였다. 모델 2를 통해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은 변함없이 소득수준과 취업상태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핸드폰 소유상태 변인이었다. 컴퓨터/인터넷 활

용상태도 영향력의 크기 순으로는 6번째로, 가구유형과 학력수준 다음의 규모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컴퓨터/인터넷 활용이 불가능한 노인일수록, 핸드폰을 소유하지 않은 노인일수록 우울수준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Table 6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로짓분석한 결과이다. 모델 1, 모델 2, 모델 3은 단계적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인만을 독립변수로 시작하여 정보화 상태를 독립변수로 추가하고, 마지막으로 우울수준을 투입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5. Factors to Effect on Level of Depression

		Model 1		Model 2	
		B	β	B	β
Gender		0.224	0.024	0.328	0.035*
Age		0.062	0.080***	0.031	0.041**
Education	Elementary school	-0.813	-0.083***	-0.713	-0.072***
	Middle school or above	-1.495	-0.150***	-1.000	-0.101***
Employment status		-1.573	-0.162***	-1.601	-0.165***
Home ownership		-0.974	-0.096***	-0.943	-0.093***
Number of Family		0.164	0.044*	0.105	0.029
Yearly Income		-0.001	-0.226***	-0.001	-0.193***
Family Type	Single	0.492	0.050**	0.508	0.052**
	Live with children	1.247	0.117***	1.121	0.105***
	Live with grandchildren	1.848	0.063***	1.820	0.063***
Computer/Internet Literacy				-1.361	-0.095***
Cellular phone possession				-1.151	-0.110***
Constant			2.605**		5.601***
F			116.291***		111.220***
R ² (Adj R ²)			0.163(0.161)		0.181(0.179)

* p<.05, ** p<.01, *** p<.001

※ Dummy : gende(female), education(ineducation), employment status(no), home ownership(no), family type (couple), computer/internet literacy(no), cellular phone possession(no)

Table 6. Factors to Effect on Suicidal Thought

	Model 1			Model 2			Model 2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Gender	0.263*	0.115	1.301	0.268*	0.115	1.308	0.183	0.122	1.201	
Age	-0.036***	0.007	0.965	-0.038***	0.007	0.963	-0.048***	0.008	0.953	
Education	Elementary school	-0.100	0.101	0.905	-0.092	0.101	0.912	0.091	0.107	1.095
	Middle school or above	-0.179	0.119	0.836	-0.173	0.124	0.841	0.038	0.133	1.039
Employment status	-0.453***	0.093	0.636	-0.448***	0.093	0.639	-0.048	0.100	0.953	
Home ownership	-0.524***	0.086	0.592	-0.523***	0.086	0.593	-0.371***	0.091	0.690	
Number of Family	-0.016	0.060	0.985	-0.013	0.060	0.988	-0.058	0.065	0.944	
Yearly Income	0.000***	0.000	1.000	0.000***	0.000	1.000	0.000	0.000	1.000	
Family Type	Single	0.410**	0.136	1.507	0.418**	0.136	1.518	0.313*	0.143	1.368
	Live with children	0.790***	0.150	2.203	0.781***	0.151	2.184	0.538**	0.161	1.713
	Live with grandchildren	0.335	0.260	1.397	0.329	0.260	1.389	-0.040	0.275	0.961
Computer/Internet Literacy				0.023	0.149	1.024	0.475**	0.161	1.608	
Cellular phone possession				-0.081	0.094	0.922	0.162	0.099	1.176	
Level of Depression							0.227***	0.010	1.255	
Constant	1.076	0.576	2.933	1.238*	0.610	3.448	-0.124	0.656	0.883	
-2Log Likelihood	4497.928			4494.446			3900.276			
Chi-Square	183.274***(df=11)			183.849***(df=13)			771.254***(df=14)			

* p<.05, ** p<.01, *** p<.001

※ Dummy : gende(female), education(ineducation), employment status(no), home ownership(no), family type (couple), computer/internet literacy(no), cellular phone possession(no)

그 결과, 모델 1에서는 다른 독립변수들의 수준이 동일하다고 할 때, 부부노인에 비해 자녀동거노인이, 독신노인이, 남성노인이, 소득수준이 높은 노인이, 연령이 낮은 노인이, 비취업 노인이,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은 노인이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모델 2에서 정보화 상태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영향력은 변화하지 않았고, 투입된 컴퓨터/인터넷 활용상태와 휴대폰 소유상태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 한편, 모델 3에서 모델 2에 우울수준 변인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결과, 모델 2와는 달리 변인의 영향력이 일부 달라졌는데, 성별과 취업, 소득수준의 영향력은 사라지고, 컴퓨터/인터넷 활용상태 변인과 우울수준 변인의 영향력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검증되었다. 즉, 부부노인가구보다 자녀동거가구와 독신가구의 노인이 자살을 생각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컴퓨터/인터넷 활용 집단이, 우울수준이 높은 집단이, 연령이 낮은 집단이,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은 노인들이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5. 결론 및 제언

정보화 사회의 도래는 노인가구의 시대적 적응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성공여부는 노인의 심리정서적 발달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보고되기 시작하면서, 노인의 정보화 상태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연구의 영역은 노인의 정보화 수준과 실태에 관한 주제와 정보화 적응과정, 그리고 자신감, 자아존중감, 자아통제감,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주제들로 정보화에 소외계층이 될 수 있는 노인들의 사회적 배제를 지양하고 보다 사회환경에 적응 가능한 노인들을 결과로 제시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보화되어가는 노인의 생활환경이 궁극적으로 노인이 수행해야 할 생활과업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노인기의 정보화 적응이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노인기에 찾아오는 우울과 우울을 자극하는 다양한 동기유발 요소 속에 정보화가 우울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자살생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 그 영향관계를 예측해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결과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몇가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정보화 상태는 남성이, 학력수준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젊은 노인일수록, 그리고 부부만 따로 사는 가구유형이 양호하였다. 이는 반대로 여성이며, 학력수준과 경제적 수준이 낮고, 고령의 노인인 경우, 그리고 독신이거나, 조손가정인 경우 정보화 환경과 수준이 열악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즉, 노인가구 내 정보격차가 존재할 수 있는 그룹들로 이질화되고 있는데, 이들은 우울수준과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구유형별로는 조손가구의 우울수준이 가장 높았고, 자살을 생각하는 노인들에는 독신이 가장 많았다. 이들은 컴퓨터/인터넷 활용과 핸드폰 소유 수준 역시 유사한 패턴으로 낮아 노인 중에서도 정보화 소외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정신건강 수준 역시 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둘째, 컴퓨터/인터넷 활용상태와 핸드폰 사용여부는 우울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우울의 영향요인으로 정보화 수단의 보유, 정보화 상태를 검증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정보화 수단의 보유와 접근가능한 능력의 보유가 어떠한 차원에서 우울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지 질적 연구가 추후 보완되어야 하나, 노인의 정보화 수단을 지원하고, 활용능력과 역량을 키워주는 것만으로도 우울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인의 정보화 정책 개발과 노인관련 복지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셋째, 정보화 상태 중 컴퓨터/인터넷 활용 변인만이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그 방향은 우울수준에서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즉, 컴퓨터/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노인들이 자살을 생각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더불어 연령 또한 우울수준에 미쳤던 영향력과는 반대로 연령이 낮은 노인들이 자살을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연령이 높고 정보화 상태가 양호하지 않을수록 우울수준은 높지만, 반대로 자살을 생각할 가능성은 더 낮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교적 젊고 정보화 상태가 양호한 노인들은 왜 자살을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 것인가?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또 다른 요인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있어 정보화 상태가 지니는 의미는 무엇이며, 정보화 수준에 따라 어떠한 경로로 자살생각을 갖게 되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재휘 · 김지호 · 신상화(2002). 노인들의 인터넷 이용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14, 67-91.
- 김형수(2002). 한국 노인의 자살생각과 관련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22(1), 159-172.
- 박충선 · 이춘옥(2003). 노년의 정보화태도와 경험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대구 · 경북지역 노인들의 정보화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8(2), 25-44.
-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2011). 2011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 서재철 · 조찬형 · 김주영 · 안인희 · 나은아 · 박수미(2008). 2008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 서혜경 · 김은주(2004). 노인들의 컴퓨터에 대한 태도 및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서울 시내 10개 노인종합복지관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한국노년학, 24(2), 21-39.
- 손연기(2008). 선진 고령화사회를 위한 고령층 정보격차해소 정책방안 고찰. 정보와 사회, 13, 33-60
- 신경림 · 강윤희 · 정덕유 · 최경예(2007). 도시지역 여성노인의 우울, 주관적 신체증상,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37(7), 1131-1138.
- 안준희 · 임경춘 · 이윤정 · 김경식(2011). 컴퓨터/인터넷 게임 활동이 노인의 우울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자아통제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지, 11(7), 406-417.
- 양경미(2004). 재가노인의 학대와 대처방안이 노인의 자아존중감, 우울, 신체화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학회지, 34(6), 1047-1056.
- 양순미 · 임춘식(2006). 농촌노인들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우울의 효과. 노인복지연구, 32, 377-396.
- 이금룡(2007). 정보화교육을 통한 인터넷 활용이 노년기 적응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노인복지연구, 37(가을), 7-30.
- 이금룡 · 홍성태 · 이윤경(2004).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중년층의 인터넷 사용 행태 : 미래 노인계층의 인터넷 활성화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24(여름), 215-237.
- 이미진 · 이가옥 · 이지영(2008). 노인 휴대전화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기대효과. 정보화정책, 15(1), 53-73.
- 이윤정 · 안준희 · 임경춘(2009). 노인용 기능성 게임개발을 위한 중노년층의 수요분석. 한국콘텐츠학회지, 9(10), 75-101.
- 조계화 · 김영경(2008). 한국노인의 우울, 자살생각 및 삶의 만족도 영향 요인.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4(2), 176-187.
- 한국정보화진흥원(2010). 2010 정보격차 지수 및 실태조사.
- 한국정보화진흥원(2011). 2010 장노년층 정보격차 실태조사.
- 한국정보화진흥원(2012). 2012 국가정보화백서.
- 홍명신(2003). 노인의 인터넷 이용에 관한 연구 : 초기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3(2), 187-203.
- 한국인터넷진흥원(2012). 한국인터넷백서.

노인가구의 정보화 상태가 우울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고 선 강(성신여대 부교수)

본 연구는 노인 가구의 정보화 상태와 노인의 우울과 자살 생각과의 관계를 2011년 노인실태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연구하여 정보화되어 가는 노인의 생활환경에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에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들의 자살을 예방하는 지지 체계로서 노인들의 정보화 능력과 수단을 탐색하는 것은 의미 있는 시도라 하겠다.

본 연구는 노인의 인터넷 사용, 휴대전화 보유와 우울과 자살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고, 그 결과를 매우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노인들의 우울과 자살을 예방하는 지지체계로서 노인들의 정보화 능력과 수단을 활용하는 정책적 개입 방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천 분야에서도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연구라 생각한다.

본 연구를 정교화하고 풍부하게 하기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 정보화의 개념과 실제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의 차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연구자도 밝혔듯이 노인의 정보화 상태를 정보의 접근성, 활용 역량, 질적 활용 정도 등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연구에서는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 여부와 핸드폰 소유 여부로 측정하고 있다. 노인의 ‘정보화’와 같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변인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오히려 연구결과를 활용한 노인들을 위한 정책개발이 더 용이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의 한계일 수 있으나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정교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울감을 측정하는 도구가 누가 개발한 도구인지를 제시해 주어야 본 연구의 결과를 노인의 우울에 대한 선행연구들과 비교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노인의 인터넷 활용과 핸드폰 소유 여부가 노인의 우울과 자살 생각에 미치는 효과의 방향성을 명확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노인의 인터넷 활용과 핸드폰 소유 여부가 우울감에는 부적인 영향, 즉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 가능한 경우 우울감이 낮아지며, 핸드폰을 소유한 경우 우울감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 노인들이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 가능한 경우 자살 생각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자살 생각을 추정하는 모형에 우울감이 투입되면서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핸드폰 소유 여부의 계수의 방향이 음에서 양으로 변화한 부분을 명확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셋째, 가족형태에 따른 노인의 우울감과 자살 생각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므로 가족형태별

하위집단을 나누어서 각각의 노인의 우울감과 자살 생각에 대한 모형을 예측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논문에서 가족형태에 따른 노인의 우울감과 자살 생각의 차이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물론 다른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에 따른 노인의 우울감과 자살 생각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가족형태에 따라 집단을 나누고 각각의 모형을 예측한 결과가 있다면 노인의 우울과 자살을 예방하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에 더 용이할 것이라 생각된다. 논문에서 제시한 모형으로 부부가족을 기준으로 독거노인,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 조손가족을 비교할 수 있으나 각 집단 안에서의 정보화의 차이가 우울과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은 알 수 없다. 각각의 가족형태에 따라 정보화와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가 어떻게 차이가 있을지 궁금하다.

넷째, 가구단위로 조사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단위를 개인으로 가져갈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가구단위로 조사가 되었고, 연구자는 분석단위를 개인으로 가져갔다. 즉 한 가구에서 두 명 이상의 노인들이 추출되어 연구에 자료로 들어가 있는 않은지 확인이 필요하다. 같은 가구에서 추출된 노인들의 경우 가족형태, 주택소유, 가족원수, 가구소득과 같이 가구 단위로 측정된 변인들의 값이 일정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연구 표본의 구성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